

“따뜻한 한 끼로 복지 사각 메운다” ‘서울밥상’ 도시락·반찬 배달 시작

서울시, 저소득층 어르신 지원 60세 이상 1000여 명에 매주 전달 민간조리업체 완조리 후 기관 제공 공공 어르신일자리 참여자들 배송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6번 출구 앞 급식소인 토마스의 집에서 자원봉사자가 배식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1000여 명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서울밥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시는 9일부터 강서구·은평구·광진구 등 8개 자치구에서 저소득층 노인 845명을 대상으로 ‘서울밥상’ 시범서비스를 진행한다

서울시가 급식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르신들에게 고른 영양의 ‘하루 한끼’를 지원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서울밥상’을 도입했다.

‘서울밥상’은 시와 계약을 맺은 민간조리업체가 대량으로 도시락과 밑반찬을 만들어 복지관 등 거점수행기관에 공급하면, 이들 기관이 어르신 댁으로 음식을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따로 공공의 조리공간이나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민간업체에서 대량으로 식자재를 구매·조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용으로 보다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서울밥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배달플랫폼이 될 관내 복지관, 대

한노인회지회, 돌봄통합센터 등 33개소의 거점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또한 음식조리를 맡을 민간조리업체로는 지난 3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학교, 병원 등을 대상으로 급식 서비스를 제공 중인 ㈜현대그린푸드

를 선정했다. 매주 민간조리업체에서 조리된 도시락 7일분(주 5일 배송), 밑반찬 7일분(주 2일 배송)이 전달되며 명절이나 어버이날·노인의 날 등에는 특식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급식을 받지 못하는 독거 어르신,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등이다.

서울밥상은 식사 제공은 물론 도시락·반찬 배달을 기존 ‘공공어르신일자리’ 사업과 연계 진행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외에도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식사 할 수 있도록 ‘서울마음편의점’, ‘1인가구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등에 공간을 마련해 어르신의 고립과 외로움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서울밥상’ 사업 참여 자치구를 추가 모집하고, 성과평가 등을 실시 후 내년에는 전체 자치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추가공간 확보 없이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서울밥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높은 양질의 급식을 대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oul.co.kr

사이버대생, 언어재활사 시험 길 열렸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사이버대학교(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학생들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공식적으로 되찾게 됐다.

8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원격대학에서 언어치료 관련 학위를 취득한 이들도 다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원격대학 졸업자들이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로 원격대학 졸업생의 응시 자격이 제한되자, 학습권 침해와 언어재활 인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며 입법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원광디지털대와 대구사이버대는 작년 11월 보건복지부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

생의 시험 응시 자격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응시자격 요건에 ‘원격대학’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 실습 과목 이수를 의무화했다.

원광디지털대 관계자는 “향후 실습 기준이 마련되는 즉시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언어재활사 인력난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 직후 원격대학 졸업생들은 시험 접수 취소 통보를 받는 등 자격 상실 위기에 직면한 바 있으며, 일부는 이미 합격 후 활동 중인 상태여서 현장의 혼란이 컸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응시 자격이 명확히 규정되며, 발달장애·자폐스펙트럼·의사소통장애 아동 등을 위한 언어재활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진 기자

고양특례시, ‘리코소일’로 도시농업에 활력

치유텃밭 조성사업 등 활용 예정

고양시가 포스코이앤씨와 손잡고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한 친환경 토양개량제 ‘리코(RE:CO)소일’을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현장에 본격 도입한다.

고양시는 지난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스코이앤씨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원순환형 토양개량제 리코소일을 기반으로 한 기술 협력과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이앤씨는 약 16만 리터 규모의 리코소일을 고양시에 무상 지원하며, 치유텃밭 조성사업과 시민 참여형 도시농업 프로그램 등에 이를 활용할 예정이다.

‘리코소일’은 커피박(찌꺼기) 등 생활폐기물을 원료로 삼아 개발된 토양개량제로, 포스코이앤씨와 ㈜삼화그린텍이 공동 개발했으며 지난 2월 특허를 획득했다. 현재는 포스코이앤씨 조경현장에 시범 적용 중이며, 고양시와의



이동환 고양시장(오른쪽), 박종진 포스코이앤씨 건축사업본부장(왼쪽).

협약을 통해 공공 부문으로 확대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시는 이 개량제를 활용해 7개 학교의 치유텃밭, 4개교의 ‘꿈자람 치유텃밭’, 시민 참여형 도시농업 프로그램 등에 적용하고, 관련 기술자문과 포스코이앤씨 임직원 봉사활동도 연계할 방침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난독·경계선지능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서울교육청, 253억 투입 집중 지원 학습진단성장센터 통해 심층 진단

서울 관내 초등학교 1학년은 올해부터 1학기 한글교육을 마친 후 난독증 조사를 받게 된다. 고교 1학년은 이달 초 경계선지능 검사를 받은 뒤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이달부터 약 253억원을 투입해 학생별로 맞춤형 교육을 하는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 촘촘한 학습안전망 구축

시교육청은 촘촘한 학습안전망 구축을 위해 학교 중심의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를 우선 지원한다.

기초학력 책임지도 예산은 총 93억 원이다. 학교 희망 여부, 학습지원 대상 학생 수, 학교 규모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학교에 예산을 차등 지원한 상태로, 초등학교에는 최소 100만원에서 1100만원, 중학교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고등학교는 100에서 600만원까지 주어졌다.

각 학교는 ▲정규수업 시간 중 협력강사 활용 협력수업 ▲방과후 교과보충 프로그램 ▲담임(교과) 교사와 함께하는 키다리샘 등 학교 여건 및 학생 상황에 맞도록 세부 프로그램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수업 중 협력수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약 8억 4000만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42교, 중학교 14교 등 기초학력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한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및 특수요인 등의 기초학력 문제는 서울 학습진단성장센터를 통해 심층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 학습성장 결정적 시기 ‘집중 지원’… 방학 중에도 ‘계속 지원’

특히, 올해는 학습성장의 결정적 시기에 대한 집중 지원을 강화한다.

초·1·2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읽기 유창성 프로젝트를 신규 운영하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학생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KT와 함께하는 기초탄탄 랜선야학’도 집중 지원한다.

초1·고1은 ‘심층진단 집중학년’으로 새롭게 운영된다. 초1의 경우, 1학년 1학기 한글교육을 마친 후 난독증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1을 대상으로는 4월 초 경계선지능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계선지능 역시 조기 발견이 중요하나, 생애주기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1은 의무교육의 시작 단계로, 난독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고1의 경우 학습 지원은 물론 진로·진학 상담과 사회적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시기로, 대학, 지자체 등과 연계해 고1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보조인력인 학습지원 튜터를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올해 약 68억원을 투입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희망하는 모든 학교 512개교에 100% 지원했고, 중학교는 희망 학교의 86.6%인 168교에 지원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4월 9일 (수) 음력 : 3월 12일

수도권 날씨 8~18°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무 / 06:06 | 해짐 / 19:02

지역별 날씨: 연천 4/18, 동두천 5/19, 가평 4/18, 파주 4/17, 서울 8/18, 양평 6/20, 인천 8/15, 수원 6/17, 용인 6/17, 평택 4/20, 백령도 6/1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트럼프 50% 관세 위협에… 중국 “상호관세, 근거 없는 강압 행위”
▲美 헤지펀드, 트럼프 쇼크에 안전 자산 ‘국채’ 급매 나섰다 /사진 뉴시스

▲트럼프 무역고문 “주식 시장은 현재 바닥을 찾는 노력 중”
▲日 소프트뱅크, 내달 개인 사채 5조9800억원 발행… “사상 최대”

▲中,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화력 비축… 경희도류 제한도 가능
▲재산 감금한 美 억만장자들, 트럼프 관세 맹비난